

한가위에 드리는 예배

한가위 감사예배는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가장이나 신앙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식사 **인도자**

한가위 명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다 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 **가족 중**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푸른 풀밭과 실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가위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감사할 줄도 몰랐고, 그 은혜를 주위에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족 모두에게 풍성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귀한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며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속히 끝이 오게 하옵시고,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넘치는 은혜와 감격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아멘 -

성경봉독 열왕기상 2장 1-4절 **인도자**

“1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4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 “**형통의 길, 패망의 길**” **인도자**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같이**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집을 풀었네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 하시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기도문 **다 같이**

◆ 설교말씀 : 형통의 길, 패망의 길 ◆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길로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도 이와 같이 인생을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평생 하나님께 복된 인생으로 쓰임 받고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두 종류의 길 중에서 하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유언으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들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의 길, 형통의 길을 걸어가려면 바로 다윗처럼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을 맞추며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형통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왕이 된 후 아버지의 유언을 잘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당대에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통치 후반에는 실패한 왕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잘못된 욕망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지킬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후 북이스라엘의 18명의 왕은 모두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의 길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성경은 그 모든 왕들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욕망과 죄로 물들었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앗수르라는 이방민족에게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길, 믿음의 길은 형통으로 가는 길입니다.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 욕망의 길은 패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가위 명절을 맞아 모든 가족들이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고 다시 말씀과 믿음의 삶을 결단함으로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가족 되길 소망합니다.



한가위에 드리는 예배



기독교 대한감리회 | HaneulSamsung Methodist Church
하늘산성교회

05759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7길 6